

도요보(Toyobo)의 기술전략

- 기술의 융합, 장기 테마 개발, 산학제휴도 추진

도요보는 기능재(機能材) 본부와 섬유사업본부의 기술전략으로서 이 두 본부의 기술을 융합토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테마(長期 Thema)의 개발을 추진하고, 젊은 개발담당자를 키우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 융합에서는 ‘신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도 개혁하고 있다.’고 임원급의 개발총괄부장 겸 섬유기술개발총괄부장은 소신을 말하였다.

이미 기능재와 섬유 기술을 융합하여 세번수 복합사(細番手 複合絲) ‘타라시스 LT’를 개발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두 본부의 벽을 터 버린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신소재뿐만 아니라 생산공정도 개혁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로서 면방적의 카드기술을 필터용 부직포 생산과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강력 폴리에틸렌 섬유 ‘다이니마’ 등의 다른 섬유와의 복합화 등에도 방적기술은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연구개발이 단기 테마에 집중해온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사적 방침에 따라 스페셜티(specialty) 사업을 육성하려면 장기테마도 필요하여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하며, 그러한 조치의 하나로 ‘다이니마 = 난(蘭)DSM’, 올레핀계 탄성섬유 ‘다우XLA’와 같이 사실성을 검토하면서, 유익하다면 해외로부터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제휴도 추진하고 있어 자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괴세대(團塊世代)의 정년이 요즘 급증하는 데 따라 기술계승이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OJT(on the job-training)는 물론이고, 기능재 본부와 섬유사업 본부가 함께 팀을 만들어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베테랑(veteran)과 젊은이를 짝지어 모든 기술을 깊이 개발토록 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